

C 권두언



표준을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국가표준화법령인 산업표준화법(구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KS규격이 제정되기 시작한지 이제 만 41년이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사 이래 각종 도량형의 통일 등을 통해 표준을 운영해온 역사를 갖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국가표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KS규격은 우리 산업에 효율성 및 호환성제고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 공업화 및 고속성장을 뒷받침해온 핵심적 인프라였으며, KS마크는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인프라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표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직접 만드는 일은 귀찮거나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하여 남이 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정보기술산업의 발전 및 국제교역의 확대추세는 일반인들도 표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21세기가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표준의 성격이 단순한 “제품규격”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변화하게 하였다. 예를들어 이동통신, MP3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등과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 국제표준의 제정을 주도한 기업들이 손쉽게 세계시장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까지도 자동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례는 표준의 중요성을 기술자 뿐만 아니라 경영자 및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S규격은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경제발전이 워낙 신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근래에 들어서는 국가표준이 정체되어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 바래고 있다고 지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국가표준의 질적 양적 수준이 국제표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국가표준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표준화를 세계시장 지배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남북통일을 대비한 표준통일 준비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일부 우려를 인식하고 2000년말에 KS규격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말이 되면 우리의 국가표준인 KS규격의 중요성이 다시금 피부에 와닿는 생활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KS규격은 다음과 같은 6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우선 KS규격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KS규격의 국제부합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2004년에는 EU수준인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두번째로 KS규격의 양적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2,000종인 KS규격의 수가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15,000종으로 확충된다.

세번째로 KS규격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제품등 하드웨어분야 중심으로 규격이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 및 금융업분야등 소프트웨어분야까지 규격제정이 확대될 것이다.

네번째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KS규격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들이 조달이나 기술규제에서 독자적 기술기준을 별도로 운영하여 중복규제 및 비 전문성의 우려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세계적인 규제개혁 추세에 따라 정부규격 통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KS규격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섯번째로 KS규격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채택시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석권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KS규격이 일반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즉 남북통일을 대비한 표준협력 등을 통해 표준이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원은 이와 같은 선진화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표준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제활동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이익을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2004년에는 우리나라가 표준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고 국가표준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서 우리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역할을 또 한번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2. 2. 28

기술표준원장

김동철